

축전을 통해 본 북한의 대중·러 연대(2012-2023)
North Korea's Solidarity with China and Russia:
An Analysis of Congratulatory Messages(2012-2023)

량미화

미국의 단극 체제 약화와 중·러 간의 협력 관계 강화로 인해 ‘신냉전’ 구도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이익 국가인 북한은 중북, 러북 연대를 강화하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즉, 북한은 ‘친선 외교’를 통해 대중·러와의 전통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의 미묘한 삼각 균형을 형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북러 삼각관계는 양자 관계의 합이 아닌, 삼자 간의 복잡한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권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러 관계는 중북러 삼각관계에서 주요 양자 관계로 역할을 하지만 북한의 대중·러 연대에 대한 전략적 변화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발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주고받은 축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북 및 러북 연대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입장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축전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자국의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 국가의 의도를 탐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축전의 빈도와 분량, 양국 관계를 표현하는 특정 용어, 그리고 대내외 문제를 언급하는 문구의 변화를 통해 시기별 대 중·러 연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축전 내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중·러 연대 태도 변화 및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축전 빈도와 텍스트의 의미를 중북 및 러북 관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러 전략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량미화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3년 『북중소 삼각관계와 북한, 1956-1961: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 형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의 대중·러 외교정책, 남방 및 북방 삼각관계, 중소국 외교정책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1961년 중조·소조 우호 조약 체결의 재고찰: 양면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과 북중소 삼각관계: 8월 전원회의 사건의 전후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중한 협력” 등이 있다.

Date & Time: May 14,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